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의 기도 (마 20:20-28)

-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의 기도의 특징

1.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마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하리라”

2.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마18: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3. 겸손한 기도입니다

21절 하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4.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5. 예수님께서 능히 이루어주실 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히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응답

22-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 성경은 사람이 인생에서 당신의 운명을 잔을 마신다는 은유로 종종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당하실 고통과 죽음을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세베데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 예수님 좌우편의 영광을 얻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했습니다. 으뜸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됨에 있어서 내가 먼저 사용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뛰어들어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실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번은 어느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갓난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몸져누워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넘기기 힘든 엄마와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돈은 전 재산이 반 크라운 2실링 6펜스뿐이었고, 얼마 동안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권면하기를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위선자.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네 주머니에 반 크라운을 움켜쥐고 있다니.” 양심에 가책을 받은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갖고 있던 반 크라운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골길을 지나 집으로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빌려드린 것이 오래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점심부터 굶어야 합니다.” 다음날 우편으로 10실링 금화 하나가 우송되어 왔습니다

실례1) 선교사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실례2)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실례3)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실례4)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함께 나눔

-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